

고소설 담론의 계보학 : 윌리엄 스킨렌드 『고대소설』의 연구사적 의의*

안동준** · 연재훈***

〈차 례〉

- | | |
|-------------------------|------------------------|
| 1. 머리말 | 3.2. 소설 개념에 대한 인식 |
| 2. 윌리엄 스킨렌드의 생애와 한국학 연구 | 3.3. 고소설 인용서목과 담론의 계보 |
| 2.1. 생애 | 4. 『고대소설』의 연구사적 의의 |
| 2.2. 한국학 연구의 배경 | 4.1. 실증적 문헌연구 방법 제시 |
| 3. 『고대소설』의 편찬과 고소설 담론 | 4.2. 동아시아 지역학으로서의 한국소설 |
| 3.1. 『고대소설』의 편성 체제 | 5. 마무리 |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해외에서 이루어진 한국학의 업적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비판했다. 한국학의 범위 확대와 질적 수준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모색하였다. 여기서는 윌리엄 스킨렌드의 <고대소설>에 수용된 연구사로서의 고소설 담론 및 그의 학문적 성과와 연구사적 의의를 검토하고, 국내외 관련 저작물에 나타난 <고대소설>의 파급 효과와 학술적 공헌을 살펴보았다.

<고대소설>에서는 서론에서 언급한 실증적 문헌학의 방법이 본론에서 제시되는 고소설 문헌자료의 분석에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았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러한 오류를 범한 주된 이유는 아시아 소설에 대한 그의 잘못된 인식을 들 수 있다. 역사적 문헌기록을 배제한 채 이루어진 스킨렌드의 실증적 문헌연구가 영국소설에 기반한 그의 관념과 오리엔탈리즘에 의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2A1A01027338)

** 경상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Professor of Korean Language and Linguistics,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University of London.

그러나 한편에서는 윌리엄 스킨렌드가 소개한 근대적 문헌연구방법은 한국 문헌학의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했다고 간주된다. 뿐만 아니라 고소설 문헌의 계보를 추적하는 가운데 언급된 국내외 소설담론의 존재를 알려주기도 했다. 또한 <고대소설>은 원본 자료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중요성을 제시하여 한국 고소설사의 문제점을 환기시킨 점에서도 크게 기여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중국소설을 번역한 작품 또는 중국소설의 번안 작품의 존재를 다루고, 한국 고소설의 해외 번역 상황까지 소개했다는 점에서 윌리엄 스킨렌드의 <고대소설>은 한국학의 세계화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큰 성과로 평가된다.

주제어: 윌리엄 스킨렌드, 고대소설, 문헌학, 고소설, 소설담론

1. 머리말

한국 근대문학 형성기에 이루어진 해외 한국학자들에 대한 연구는 최근 들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모리스 쿠랑(Maurice Courant, 1865-1935)을 비롯한 제임스 게일(James S. Gale, 1863-1937) 등과 같은 한국학자에 관한 연구성과는 일정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알려진다. 하지만 윌리엄 스킨렌드(William E. Skillend, 1926-2010)의 업적에 대해서는 1971년 정병욱의 서평¹⁾ 이후 국내 학계에서는 주목할 만한 논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학문적 성과에 대한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윌리엄 스킨렌드의 『古代小說 Kode Sosöl: A Survey of Korean Traditional Style Popular Novels』(이하 『고대소설』로 약칭한다)을 주된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해외 한국학 연구의 성과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한국문학사 이면에 전개된 고소설 담론의 존재를 다각도로 조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스킨렌드는 서양인 선교사가 아닌 본격적인 동양학자로서 일찍이 일본 고전문학을 연구하다가 나중에 한국학을 전공하여 유럽한국학회를 창설한 인물이다. 『고대소설』은 스킨렌드가 1961년에서 1965년까지 직접 열람한 총 531종²⁾의 고소설 문헌을 연구한 영문 학술저술인데, 1968년에 영국 런던에서 출판되었다. 이 책의 존재가 국내에 알려질 1970년대 당시에는 가장 방대한 고소설 목록으로 평가되어 국내 고소설 전공자들 사이에 필독서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해외에서 축적된 한국학 연구성과는 오늘날의 시점에서 재평가할 필요가 있는데, 이 글에서는 스킨렌드의 『고대소설』을 고소설 담론의 계보학이란 주제로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다음 몇 가지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연구의 방향을 설정했다. 첫째, 스킨렌드가 한국 고소설을 연구하려는 동기는 무엇이었던가. 둘째, 어떤 방법으로 연구했는가. 셋째, 과연 그는 한국 고소설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했는가. 넷째, 이러한 스킨렌드의 업적은 한국 고소설 연구사에 어떠한 의의를 갖는가이다. 1970년대 초반의 국문학계의 사정은 정병욱의 서평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근대의 실증주의적 문헌학 연구방법에 크게 주목하고, 첫째와 넷째의 문제의식을 철저

1) 정병욱, 「서평- W. E. Skillend著 古代小說 Kode Sosöl」(『고전문학연구』 제1집, 1971), 173-179쪽.
2) 조동일, 제4판 『한국문학통사3』(지식산업사, 2005, 92쪽)에 의하면, 현재까지 밝혀진 고소설은 모두 858종이다.

히 따지지 않았다. 셋째의 문제의식도 정면으로 문제 삼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에서 스킨랜드의 저술 의도를 살피고, 『고대소설』에 내재한 담론의 계보와 그 연원을 탐색하여 해외 한국학자에 의해 시도된 고소설목록작업의 성과를 재조명하고, 나아가 한국 고소설 연구사에 미친 그의 공헌을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스킨랜드의 생애와 한국학 연구의 동기를 살펴보고, 나아가 『고대소설』을 집필할 당시 활용한 참고 문헌들과 기타 저작물들을 통해 소설 개념에 대한 그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의 지향점은 근대 이후의 해외 한국학이 아시아 지역학에서 출발했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실증적인 문헌학에 내재한 고소설 담론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밝혀내는 데 무게를 두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스킨랜드의 『고대소설』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 책에서 거론된 각종 문헌들을 모두 찾아 직접 열람하고 조사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본 연구의 주제가 고소설 담론의 계보학인 것을 감안해서 『고대소설』이 출간된 1968년 이전의 고소설 관련 자료를 연구대상으로 삼되, 그 범위를 『고대소설』의 저술에 직접 인용된 학술저서와 학술논문 등에 국한시켰다.

2. 윌리엄 스킨랜드의 생애와 한국학 연구

오늘날 한국학계에서는 윌리엄 스킨랜드에 대하여 영국 동양학자의 개척자 가운데 한 사람이며, 유럽한국학회(AKSE: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in Europe)를 창설한 인물이고, 한국학의 대표적인 명저인 『고대소설』의 저자로 기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스킨랜드의 업적과 그의 저술 의도를 인문학적 담론의 차원에서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된 연구대상인 『고대소설』 이외의 관련 논문이나 세미나 자료, 서평, 회고록 등을 폭넓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 그의 생애에 대한 이해도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영역이다.

2.1. 생애

윌리엄 스킨랜드는 1926년 4월 26일에 잉글랜드 북쪽에 위치한 항구도시인 리버풀에서 태어났다. 그가 남긴 회고록에 의하면³⁾, 유년기는 그의 고향 리버풀에서 보내면서 6년제 리버풀 중학교(Liverpool grammar school) 시절부터 라틴어와 그리스어에 통달하여 호머와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그리스어와 라틴어의 고전문학 원전을 읽을 수 있었다고 한다. 1944년에 케임브리지대학 크라이스트 칼리지(Christ's College)에 입학하여 장학금을 받고 고전문헌학과 언어학을 포괄하는 필롤로지(Philology), 곧 역사언어학을 전공했는데, 이러한 스킨랜드의 삶은, 벨파스트의 퀸즈대학(Queen's College)에 진학하여 문헌학 교육을 받고 일본과 한국으로 건너가 문헌조사와 수집에 주력한 애스턴(W.G. Aston, 1841-1911)의 이력과 비교된다.

스킨랜드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그 해에 블레츨리 파크(Bletchley Park)에 설치된 영

3) W. E. Skillend, 「The early days, 1947-55」, Richard Bowring, ed., 『Fifty years of Japanese at Cambridge 1948-98 : A chronicle with reminiscences』, Faculty of Oriental Studies, University of Cambridge, 1998. 스킨랜드가 케임브리지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마칠 때까지의 주변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모두 이 자료에 근거했다.

국 정보기관에 입대하여 일본의 군사정보를 해독하는 역할을 맡았다.⁴⁾ 정보기관에 근무했을 무렵에 스킨렌드는 일본인 교사 에릭 시델(Eric Bertrand Ceadel, 1921-1979)을 만나 처음 일본어를 배웠다고 한다. 스킨렌드를 가르친 에릭 시델은 1941년에 입대하여 1945년에 전역할 때까지 베드포드 일본어학교(Bedford Japanese School)의 일본어 교사로 근무했는데, 특수정보교육 파트를 맡아 6개월 단기 코스를 마친 졸업생을 블레츨리 파크에 보내는 임무를 맡았다.⁵⁾ 제2차 세계대전 끝난 1945년 이후 에릭 시델은 케임브리지대학에 돌아와 크라이스트 칼리지의 연구생으로 잠시 있다가 1947년에 신설된 일본어 전공 최초의 전임강사로 임명되었다. 그후 에릭 시델은 케임브리지대학의 일본학 연구에 구심점 역할을 담당했다고 한다.

1947년에 스킨렌드는 케임브리지의 크라이스트 칼리지에서 에릭 시델과 다시 만났다. 군복무 시절의 인연을 발판으로 그는 케임브리지대학에 신설된 일본학과에 지원한 최초의 학생이 되었고, 에릭 시델과의 인연은 박사과정까지 지속되어 그의 동양학 연구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1950년에는 일본학 전공에서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1951년에 케임브리지대학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일본 고전문헌 연구에 몰두했다. 또한 1947년 당시 케임브리지대학 구내식당에서 포스터(E.M. Forster)와 자리를 같이하는 기회를 갖기도 하여 영국소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도 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볼 때, 그의 군복무 경험은 그리스어와 라틴어에 경도된 그의 문헌학적 관심을 동아시아 언어와 문화로 바꾸어 놓고, 그가 평생토록 유럽의 동양학자로 성장해 나가는 데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보인다.

스킨렌드가 한국어를 배우게 된 계기는 런던대학에 풀타임 교수로 자리를 잡은 이후가 된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 그는 에릭 시델의 조언에 따라 런던대학 동양아프리카대학(SOAS: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에 신설된 한국어 전임강사 자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1953년에 부임했다. 그는 1953년부터 런던대학 SOAS에서 한국어를 담당한 이후, 연구의 비중을 한국학과 일본학에 균등하게 두고 남은 시간을 활용하여 1955년에 「만엽집(萬葉集)의 어휘에 대한 연구(The Vocabulary of the Manyosu)」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16년 당시 런던대학에는 동양학대학(School of Oriental Studies)이 있었지만 한국학 관련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1938년에 동양학대학이 오늘날의 동양아프리카대학(SOAS)으로 교명이 바뀐 이후, 1940년대 후반부터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었고, 학과 차원에서 정식으로 한국어 과정이 개설된 것은 스킨렌드가 전임교수로 부임한 1953년 이후이다.

스킨렌드는 한국어를 전공한 최초의 영국 대학교수로서 알려져 있지만, 그가 런던대학에 부임하기 이전에는 일본학 전공자였다. 런던대학에 부임한 이후에 한국인 학자의 도움을 받아 1955년 이후 2년 남짓한 기간에 한국에서 객원교수로 체류하며 한국어를 익혔다고 한다.⁶⁾ 당

4) Andrew David Jackson, 「Introduction: Sixty years of Koreann Studies at SOAS」, 『Key Papers on Korea: Essays Celebrating 25 Years of the Centre of Korean Studies, SOAS, University of London』, ed. Andrew David Jackson, Leiden · Boston: Global Oriental, 2013, pp. 2-3. 블레츨리 파크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의 대표적인 암호해독 군사기관으로서, 앨런 튜링이 독일군의 에니그마 암호의 해독에 성공하여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유명하다.

5) Peter Kornicki, 「Eric Bertrand Ceadel, 1921-79: Japanese studies at Cambridge」, in H. Cortazzi, ed., 『Britain and Japan: Biographical Portraits』, vol 5, Folkestone: Global Oriental, 2005, pp. 337-343.

6) Andrew David Jackson, 같은 책, 2쪽.

시 런던대학에 있었던 한국인 학자는 정인섭(鄭寅燮, 1905-1983)으로 추정된다. 정인섭은 일본 와세다(早稻田大學) 영문과 출신이면서 일본어에 능통했다. 그는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바다 건너 런던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1952년에 영문판 『한국설화(Folk Tales from Korea)』를 런던 현지의 출판사를 통해 출간하고, 이듬해 1953년에 런던대학 대학원을 수료했다. 정인섭은 1930년대 해외문학과 평론가로 활동하면서 민족문학의 자생적 발전 가능성을 부정한 대표적인 친일문학인이었다. 그는 적극적 친일 행각을 펼치는 반면에 송석하, 손진태와 더불어 조선민속학회를 창립하고, 조선어학회와 한글맞춤법통일안 제정에도 참여하기도 했다. 한국학을 처음 접하는 스킬렌드에게 이러한 내력을 가진 정인섭의 영향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⁷⁾

1955년에 스킬렌드는 최초의 안식년을 얻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1961년 9월부터 1962년 8월까지의 두 번째 안식년도 한국을 택했다. 두 번째 안식년 기간에 서울대학교 국문학과에 재직했던 정병욱(1922-1982) 교수와 이기문 교수를 만나서 그들의 지도로 본격적인 한국학에 입문하게 되었다고 한다.⁸⁾ 그는 국어사의 권위자인 이기문 교수에게 한국어 관련 기초지식을 배우고, 정병욱 교수에게는 고전문학 작품의 원전 해독과 작품성 및 작품의 문헌적 가치를 판별하는 요령을 배웠다고 한다. 특히 정병욱 교수의 배려로, 당시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창경궁에 보관된 낙선재(樂善齋) 고소설도 그가 직접 열람할 수 있었다고 한다. 스킬렌드의 두 번째 안식년을 통해 이루어진 조선 후기 고소설의 목록작업은⁹⁾ 이러한 한국학의 기초적 토대 위에서 가능했다는 사실은 『고대소설』의 서술 배경과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62년에 한국에서 귀국한 스킬렌드는 이듬해 다시 미국 컬럼비아대학의 초빙교수로 부임했다. 그가 1963년에서 1964년까지 컬럼비아대학에 재직할 때 컬럼비아대학의 한국학 설립에도 기여했다.¹⁰⁾ 컬럼비아대학에서 다시 런던에 돌아온 스킬렌드는 1977년 4월에 유럽한국학회를 창설하고 1982년부터 1984년까지 회장을 역임했다. 그는 1989년에 런던대학에서 정년을 마쳤지만, 런던대학의 종신교수 신분을 유지한 채 꾸준히 해외 한국학 분야에서 활동하다가 2010년 2월 21일에 83세의 나이로 생애를 마쳤다.¹¹⁾

7) Zong In-sob, 『Folk Tales from Korea』, Routledge and Kegan Paul, London, 1952. 한국설화를 소개한 이 저술은 『고대소설』에 무려 5회나 인용되고 있다.

8) W. E. Skillend, 『Chōng Pyōnguk, Friend and Teacher』, 추모문집간행위원회 편, 『백영 정병욱의 인간과 학문』(신구문화사, 1997), 109-110쪽.

9) 1965년 4월 2일에서 4월 4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제17차 아시아학연구협회의 세미나가 개최되었는데 여기서 스킬렌드는 그 동안 진행된 한국 고소설 목록작업의 진행상황을 소개한 바가 있다. 이에 의하면 고소설목록작업은 1965년 4월 이전에 완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W. E. Skillend, 『Some First Problems Encountered in the Study and Teaching of Korean Literature in the West』, 『The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8, No.3, 1965, pp.155-158.

10) 컬럼비아대학은 1934년에 한국 감리교의 윤응팔 목사가 동아시아 학부에서 최초로 한국어 강좌를 개설했다고 하지만, 이곳에서 본격적인 한국학 과정이 개설된 것은 컬럼비아대학이 윌리엄 스킬렌드를 객원교수로 초빙한 1963년 이후이다. 스킬렌드가 귀국한 뒤에 게리 야드가 후임으로 와서 컬럼비아대학의 한국학을 담당했다.

11) 필자가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가 런던대학 재직 시절에 살았던 집은 런던 동남쪽에 위치한 그리니치 천문대 인근의 블랙히스(Blackheath) 주택가에 있었다. 정확한 주소는 '26 Fox Dale, London SE3 9BQ'이다. 2015년 현재 스킬렌드의 아들 데이빗(David)은 집을 팔고 독일로 이주했고 그 자택에는 다른 분이 살고 있었다.

2.2. 한국학 연구의 배경

스킬렌드는 『고대소설』의 서론에서 저술 동기가 해외 한국고소설 연구자를 위한 안내서 역할을 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를 검양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미진한 느낌이 있다. 앞서 언급한 스킬렌드의 행적을 통해 볼 때에도 그의 한국학연구 동기는 지적 호기심의 충족이나 문헌현상에 대한 객관적 연구의 결과로 다룰 수 없는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찍이 영국은 대영제국 시절부터 왕립아시아학회(RAS: The Royal Asiatic Society of Great Britain and Ireland)를 설립하여 오리엔탈리즘을 추구했다. 현재까지 존속되는 왕립아시아학회는 아시아를 이해하기 위한 영국 상류 계층의 학술단체로서, 아시아와 관련된 과학과 문학 및 예술을 장려하고 그와 관련된 주제를 탐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1824년 런던에서 창립되었다. 초기에는 인도의 산스크리트어 연구에 관심이 많은 학자들과 식민지 관료들로 구성되었지만 점차 관심 대상의 폭을 넓혀 북아프리카와 에티오피아 및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했다. 학회지로는 케임브리지대학 출판부에서 매년 4회 발행하는 「왕립아시아학회지널(JRAS: The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이 있고, 한국 지부는 1900년에 설립되었다.

영국의 대표적인 동양학자이면서 케임브리지대학 출신인 스킬렌드의 경우도 이러한 분위기에서 크게 자유롭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초기 한국학의 개척자 애스턴이나 제임스 게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스킬렌드 역시 왕립아시아학회의 회원으로서 활동했다는 기록이 1972년과 1987년의 한국지부의 회원 명단에서 확인된다. 그들뿐만 아니라 리처드 루트(Richard Rutt, 1925-2011), 게리 야드(Gari Ledyard) 등 대부분의 해외 한국학자들이 왕립아시아학회 소속의 회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아시아 지역학의 일환으로서 한국학 연구에 많은 성과를 낳았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¹²⁾

앞서 살핀 것처럼 스킬렌드가 일본학에서 한국학으로 전환한 배경에도 에릭 시델의 힘이 일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였지만,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유도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다만 당시의 케임브리지대학이 아시아 지역의 동양학연구를 선도하고 있었던 배경을 고려해 볼 때, 스킬렌드가 한국학을 연구한 동기는 영국의 정책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가 런던대학 SOAS에 부임할 무렵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그로 인해 다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학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영국 측에서 절실히 요구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¹³⁾

그러나 극동지역에 치우친 한국의 현지 사정은 단순하지 않았다. 스킬렌드 이전의 애스턴이나 모리스 꾸랑 등은¹⁴⁾ 아시아 지역학연구의 일환으로서 일본과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학습

12) 왕립아시아학회의 취지처럼, 일본이나 한국에 주재하던 영국의 선교사나 외교관들은 일찍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기초 연구를 진행했다. 일본 주재의 영국 외교관 애스턴은 조선과의 정식 수호조약이 체결되기 전 1878년부터 1883년까지 「홍신수길의 한국침략(Hideyoshi's Invasion of Korea)」이란 장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이어서 「한국어와 일본어의 비교연구(A Comparative Study of the Japanese and Corean Language)」(1879)와 「한국의 대중문학(Corean Popular Literature)」(1890) 등의 논문을 왕립아시아학회지를 통해 발표한 바가 있다.

13) Andrew David Jackson, 같은 책, 3쪽.

14) 윌리엄 애스턴과 모리스 꾸랑은 스킬렌드의 『고대소설』 연구에 있어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다. 아일랜드 출신의 애스턴은 1859년에서 1863년까지 영국의 퀸즈대학에 수학하면서

했는데, 당시의 주된 교재는 대개 그 지역의 고소설이었다. 언어적 표기와 관습이 상이한 극동 지역에서 자국어로 기술된 고소설의 해독은 유럽학자들에게는 일상적 회화 이상의 언어능력을 요구했다. 게다가 당시의 고소설은 구전문화의 전통을 계승한 탓에 토착문화에 대한 지식과 언어감각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더욱이 필사본 형태로 전송되는 고소설의 해독은 외국인 학자에게는 접근이 불가능한 영역이었다. 이에 따라 고소설에 대한 이해는 일차적으로 실물 중심의 문헌학적 연구를 촉발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의 이면에 유럽 중심의 문화와 세계관을 보편화하려는 의도가 내재해 있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고소설 문헌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시아 초기소설의 성립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소설이 고대에서부터 출현했다는 중국학자의 주장이나 15세기에 소설이 성립되었다는 한국학자의 주장이 그것이다. 동아시아의 소설이 18세기에 성립된 영국소설의 전통보다 훨씬 오래되었다는 현지 학자들의 주장은, ‘노벨’ 중심의 개념에 익숙한 영국학자들을 충분히 당황하게 만들었을 여지가 있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근대적 서사물로서 ‘노벨’이 갖는 보편성인데, ‘노벨’은 동아시아 지역 학으로서 한국학을 인식한 스킬렌드가 『고대소설』에서 정면으로 다루지 못했던 개념이었다. 그는 『고대소설』이 출간된 직후 1968년에 발표된 논문에서¹⁵⁾ 이인직의 신소설 ‘혈의누’를 한국 최초의 소설이라고 했지만, 동아시아의 ‘소설’과 영국의 ‘노벨’이 어떻게 같고 다른 지는 해명하지 않았다. 격변하는 근대적 세계관을 반영하지 못한 동아시아의 전통적 서사물은 ‘고대소설’이고, 고대소설과 대립되는 ‘신소설’이 영국의 ‘노벨’과 견줄 만한 근대적 서사물이라고 했다. 이러한 스킬렌드의 인식은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식민지배 담론(colonial discourse)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

신소설은 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드러나는 동아시아 정세를 소설로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소설사적 측면에서는 고소설의 재현에 지나지 않는다. 구한말에 제국주의 열강세력들이 한반도의 문제를 놓고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대립되었는데, 영국의 경우는 1885년에 한반도 남단의 거문도를 포트해밀턴(Port Hamilton)이란 이름을 붙이고 불법 점령한 역사도 있었다. 한국문학의 부재론을 주장한 애스턴은¹⁶⁾ 영국의 외교관으로서 거문도 사건의 중심에서 활약했다. 이 사건으로 영국 정부가 남진 정책을 추진하는 러시아와 마찰을 빚게 되자, 영국은 러시아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1887년에 거문도에서 철수했다. 영국 세력이 물러난 이후, 1894년의 청일전쟁과 1904년의 러일전쟁이 발발했고, 1905년에 일본 제국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독일어를 익히며 문헌학의 기초를 철저히 다진 인물이다. 스킬렌드보다 앞선 세대인 애스턴은 주일본 영국영사관에 근무하면서 일본어를 익히고 문법서를 집필할 만큼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 학자 겸 외교관이었다. 그는 동아시아 지역에 파견된 이후 「일본어와 한국어의 비교 연구(A Comparative Study of the Japanese and Korean Languages)」라는 논문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1884년에 한국 총영사로 부임하여 1890년에 한국 대중문학에 대한 논문을 일본에서 발표했고, 영국으로 귀국한 이후 1900년에 한국 대중문학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애스턴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동방학연구소와 케임브리지 대학에 애스턴 컬렉션을 남길 만큼 일본과 한국의 고문헌 수집에 열의를 보였는데, 그가 미처 검토하지 못한 한국 고소설의 판본조사는 모리스 꾸랑에 의해 1890년에 목록작업이 이루어졌고, 1894년에 『Bibliographie Coréenne(한국서지)』란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15) W. E. Skillend, 「The Text of the First Novel in Korean」, 『Asia Major』, vol. 14, part 1, 1968.

16) W. G. Aston, 「On Corean Popular literature」, 『Transactions of the Asiatic society of Japan』, vol. 18, 1890.

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했다. 그 결과 중국, 러시아, 영국이 한반도에서 물러나고 일본 제국주의 세력이 동아시아의 최강자로 부상하게 되었다. 일본 제국이 실질적으로 한반도를 점령하게 된 이후 1906년에 이인직이 만세보(萬歲報)에 청일전쟁을 배경으로 신소설 '혈의누'를 연재했다. 난세의 구원자로 새롭게 부상한 일본 제국으로 유학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 '혈의누'와 같은 신소설의 주제이다. 스킬렌드는 이러한 신소설을 '진지한 문학적 의도(the serious literary intent)'가 있는 한국 최초의 '노벨'로 간주했다.¹⁷⁾ 하지만 실상은 이와 다르다. 신소설은 표면적으로는 개화사상을 역설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전근대적 가치관을 보여준다.¹⁸⁾

스킬렌드는 19세기 이후 서구 열강세력들이 몰려들면서 격변하게 되는 동아시아 정세를 서사산문의 형태로 반영한 것이 신소설이고 이를 '노벨'이라고 규정했다. 이야기책으로 유통되는 한국의 고소설은 전근대적 통속문학과 유럽 중심에서 바라본 동아시아 담론의 구성요소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유럽 중심적 한국문학 인식은 알렌, 애스턴, 헐버트 등 초기 해외 한국 학자들의 일반적인 경향이었다.¹⁹⁾ 스킬렌드의 경우는 일찍이 일본문학의 문헌연구에서 출발했지만, 나중에 한국학 연구로 전환하게 된 동기는 이러한 동아시아 지역학연구의 배경에서 찾을 수 있다. 그가 해외 한국학자로서 고소설을 통해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한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가 시도한 고소설 문헌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오리엔탈리즘에 근거한 인문학적 시도란 점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의 의도가 동양학의 하위 범주에서 한국학을 연구한 것에 있다면, 고소설 문헌학에 대한 스킬렌드의 공헌은 동아시아 담론의 차원에서 살필 필요가 있다.

3. 『고대소설』의 편찬과 고소설 담론

스킬렌드의 학문적 성과를 고소설 담론의 측면에서 살펴보는 작업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하나는 『고대소설』의 편성 체제를 통해 근대 문헌학이 동아시아 담론으로서 어떻게 구현되었는가 하는 문제인데, 여러 고소설 판본들의 분류 작업이 어떤 인식의 틀에 따라 체계화되었는지 살피고자 한다. 다른 하나는 소설 개념에 대한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전개되어 나가는지 그 연원과 계보를 탐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고대소설』에 투입된 고소설 담론들이 어떤 계보를 형성하고 있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3.1. 『고대소설』의 편성 체제

『고대소설』에서 다룬 일차 자료의 범위는 소설, 설화, 전기, 회고록, 일기, 역사서, 자서전

17) W. E. Skillend, 앞의 논문, 46쪽.

18) 조동일, 『신소설의 문학사적 성격』(서울대학교출판부, 1973), 152-156쪽.

19) 김성철, 「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 서양인들의 한국 문학 인식 과정에서 드러나는 서구 중심적 시각과 번역 태도」, 『우리문학연구』 제39집, 2013, 89-113쪽.

등 근대 이전의 한국 산문문학이다.²⁰⁾ 고소설 부문을 따로 살펴보아도 필사본, 목판본, 방각본, 구할자본, 신할자본이며, 그중 방각본을 따로 떼어놓아도 완판본, 경판본, 안성판본 등 모든 판종(板種)을 망라하고 있다. 특히 구할자본의 경우는 40여 개 출판사의 판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스킬렌드는 이러한 일차 자료를 자신이 직접 소장처를 방문하여 열람했다고 한다. 그 소장처를 열거하면 미국 버클리대학의 천견문고(淺見文庫, Assami Collection), 와싱턴 시애틀의 서두수 소장본, 와싱턴대학의 동양학도서관, 하바드대학의 엔칭도서관 및 영국 런던의 영국박물관, 런던대학 SOAS 도서관, 그리고 일본 천리대학(天理大學)의 오야사토(Oyassato) 연구소, 교토대학(京都大學)의 하함문고(河合文庫, Kaai Bunko), 도쿄대학(東京大學)의 소창문고(小倉文庫, Ogura Collection), 도쿄의 동양문고(東洋文庫) 등이며, 한국에서는 정병욱 소장본, 장서각(藏書閣), 규장각,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이다. 이외에 스킬렌드가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지 않았지만 책에서 언급한 소장처는 프랑스 파리의 동양어학교 도서관, 러시아 레닌그라드의 애스턴 컬렉션(Aston Collection) 및 국내 각지의 대학도서관이었다고 한다.

이밖에도 스킬렌드가 『고대소설』의 저술에 참고한 이차 자료는 이화여대의 『한국고대소설총서(韓國古代小說叢書)』, 희망출판사의 『한국고전문학전집(韓國古典文學全集)』과 같은 고소설 자료집을 비롯해서 서울대도서관 일사문고·가람문고의 「고서저자목록(古書著者目錄)」, 페트로바(Petrova)의 「한국도서해제(Opisanie Pis'mennuikh Pamyatnikov Koreiskoi kul'turui)」, 기타 국내외 학술논문과 저술들이다. 스킬렌드가 소개한 고소설의 판본은 무려 531종이나 되고 참고문헌이 1966년까지의 국문학과 고소설 연구 업적을 대다수 망라하여 상당히 방대한 범위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고대소설』의 편성 체제는 제1장의 서론, 제2장의 참고문헌 소개, 제3장의 고대소설 목록 등, 모두 3장으로 구성되었다. 권말에 부록으로 한자 제목 색인(Index of Titles in Chinese Characters)이 첨부되어 있다. 그 가운데 제1장은 다시 13절로 아래와 같이 나뉘어 있다.

I. 서론(Introduction)

1. 연구의 범위와 목적
2. 표제의 선정
3. 표제 목록의 배열
4. 이야기의 개요(General Information on Stories)
5. 개요의 출처
6. 제목만 알려진 이야기
7. 이야기의 기원(The Origin of Stories)
8. 판본
9. 필사본

20) 『고대소설』에 수록된 작품 가운데 고소설로 인정하기 어려운 작품도 있지만, 스킬렌드는 이를 ‘고대소설’이라는 범주로 묶어서 함께 다루었다. 이러한 점에 대한 비판은 다음 절에서 다루고자 한다.

10. 방각본
 11. 근대 인쇄물
 12. 판본 소재
 13. 미확인 소장품
- II. 참고문헌 소개(Index of Brief Reference)
- III. 고대소설 목록(A List of Kodae Sosöl by Titles)
- 부록: 한자 제목 색인(Index of Titles in Chinese Characters)

이와 같은 고소설의 목록 작업은 대체로 크게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단계는 외국인에게 낯선 고소설의 다양한 표제를 어떻게 선정하고 배열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고대소설』 서론의 제1절과 제2절이 여기에 해당된다. 현존하는 고소설 작품은 한글맞춤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출현한 탓에 그 내용이 동일한 작품일지라도 다양한 표기가 공존한다. 게다가 한문 표제의 처리 문제와 아래아(·)와 같은 한글 고어의 표기를 표준화하는 문제에 있어서 고충이 예상된다. 그러나 『고대소설』에서는 제목의 표기가 서로 다를지라도 상호 관련된 작품군은 하나로 묶고, 맞춤법 통일안에 따라 표제를 정했다. 표제의 배열 순서는 이희승 편 『국어대사전』(민중서관, 1961)의 자모 배열 순서에 따랐다.

두 번째 단계는 작품의 해제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서론의 제4절, 제5절, 제6절, 제7절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서는 목록으로 제시한 고소설 작품을 해설하고 참고문헌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덧붙였다. 제목만 알려진 작품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명확히 제시했다. 작품의 기원에 대한 논의는 서론에서 8쪽에 걸쳐 다루었는데, 역사적 사실과 현존하는 문헌의 존재에 근거해서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18세기 국문본 고소설의 존재를 입증하는 자료로 한국고소설사에서 널리 인용되는 「상서기문(象胥記聞)」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 근거로 1763년에서 1876년까지 일본과의 공식적인 교류가 없었다는 관련 논문²¹⁾을 소개했다.

세 번째 단계는 1961년에서 1965년까지 조사한 고소설 판본의 간기(刊記) 문제와 판본의 분류에 관한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고소설 문헌의 전승과 유통 과정을 추적하고, 그 결과를 정리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목록을 완성하는 작업으로 이어진다. 고소설 판본은 크게 필사본, 목판본, 인쇄본으로 구분했는데, 필사본의 경우 간지(干支)에 나타난 실제의 필사시기를 어떻게 추정했는가 하는 점을 밝혔고, 목판본의 경우는 경판본, 완판본, 안성판본으로 다시 세분화했다. 그중 가장 주력한 부분은 활판 인쇄본인데, 구활자본과 신활자본을 망라하여 43개의 출판사와 25명의 발행인 명단을 작성했다.

이처럼 특정 작품에 대한 각종 이본(異本)들의 존재와 서지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체계화한 점에서 종전의 고소설 목록과는 차별된다. 물론 『고대소설』 이전에도 부분적 이나마 국내에서도 판본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김동욱(1960)의 「한글소설 방각본의 성립에 대하여」, 박성익(1963), 「미발표 고대소설攷」, 이능우(1964), 「이야기冊 “古代小說” 板本

21) George M. McCune, 「The Exchange of Envoys between Korea and Japan during the Tokugawa Period」, 『Far Eastern Quarterly』, V3. May 1946, pp. 308-325.

誌略」 등이 있었다. 하지만 대체로 방각본에 치중하거나 국내 대학도서관에 소장된 일부 작품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고대소설』처럼 필사본, 방각본, 구활자본을 대상으로 531종의 판본을 국내외 소장처를 직접 방문하여 전반적으로 다룬 국내의 선행연구는 스킨랜드 이전에는 없었다.

판본 정리를 통한 목록작업은 고소설 연구에 필요한 문헌들의 소재와 연구 상황을 알려주는 기본 연구이다. 대상 작품의 문헌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를 전제로 하지 않는 문학연구는 설득력을 얻기 어려운데, 이러한 실증적 문헌학의 성과는 해외 한국학자뿐만 아니라 국내 고소설 전공자에게도 고소설 연구에 필요한 문헌조사의 기초적 토대를 마련해 준 점에서 그 의의가 높게 평가된다.

예를 들면 460번으로 분류된 춘향전의 경우, 모두 6쪽에 걸쳐 작품에 대한 해설과 아울러 각종 판본의 종류와 그 소재처 및 각종 번역본의 현황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표제에 따라 춘향가(春香歌), 광한루기(廣寒樓記), 광한루악부(廣寒樓樂府), 춘향전(春香傳), 남원고사(南原古詞), 별춘향가, 별춘향전, 열녀춘향수절가, 옥중화(獄中花)로 분류하여 모두 동일한 작품의 이본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대적으로는 초기 판본에서 이해조와 이광수에 의해 개작된 현대 판본에 이르기까지 열거하고, 인쇄매체에 따라 한문 필사본, 게일(Gale)의 영문 번역본, 현대어 교주본(校註本), 방각본으로 유통된 경판본과 완판본 및 안성판본, 구활자본 등이 망라되었고, 방각본의 경우는 한남서림(翰南書林), 북촌서포(北村書舖), 완유계서포(完酉溪書舖), 흥사서포(興社書舖), 다가서포(多佳書舖)와 같은 출판사를 소상하게 정리하고 각 판본의 발행년도까지 세심하게 밝혔다. 해당 판본의 소장처로는 서울대학교 일사문고(一簣文庫), 정병욱 개인소장본, 하버드 엔칭도서관, 레닌그라드 애스턴 컬렉션 등을 밝혔고, 국내외 학자의 저술로는 김동욱, 강한영, 구자균, 이병기, 김태준, 김삼불, 조운제, 알렌(H. N. Allen, 1858-1932) 등을 두루 거론하고 있다.

고소설 목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현존하는 문헌자료의 추적인데,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고소설 문헌들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본, 영국, 러시아, 프랑스, 미국에 있는 것도 있었다. 그러나 『고대소설』에서는 각종 고소설 문헌들의 소재를 확인한 것에만 그치지 않고, 고소설 연구자의 편의를 고려해서 한 자리에 일정한 작품을 모아 상호 비교연구를 할 수 있게끔 배려했다.

문학연구는 먼저 텍스트가 어떻게 전승되고 있는지를 밝혀야 하고, 이에 따라 각 이본들 가운데 최선본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텍스트들의 계보를 작성하고 문헌추적, 문헌수집, 문헌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거쳐 해당 작품의 번역과 작품 내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스킨랜드의 작업은 번역에 필요한 원본의 확정과 작품 내적인 연구에 필요한 기초적인 문헌조사에 해당한다. 실증적 검토를 거친 문헌연구를 통해 원본을 확정하고, 원본이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주석본이나 번역서가 나오게 된다. 이 과정을 거쳐야 작품의 내면적 세계로 접근할 수 있다. 본격적인 문학연구의 길을 열어주는 작업이 문헌학이고 이러한 기초적인 작업을 수행한 것이 바로 스킨랜드의 『고대소설』이다.

이러한 스킨랜드의 작업은 1894년에 이루어진 모리스 꾸랑의 『한국서지』와 대조된다. 『한국서지』의 경우는 목록작업을 통해 19세기 말에 유통되었던 고소설의 현황을 로망(Romans)

또는 전설(傳說) 유형으로 분류해서 간략한 해제를 곁들인 데 그친 반면에, 『고대소설』은 해당 판본의 형태와 이본의 존재 및 소장처와 유통과정까지 추적해서 밝힌 점에서 본격적인 문헌연구의 본보기가 되었다. 물론 『한국서지』에서도 고소설 작품의 소장처를 명시한 것이 전혀 없는 바는 아니지만, 주로 규장각, 파리 동양어학교, 대영박물관 등 일부 장소에 국한되고, 일정 부분의 고소설 목록은 실물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스킬렌드와 모리스 꾸랑이 일치된 견해를 보여주는 부분도 있었다. 중국소설작품을 그대로 한국의 고소설 목록에 포함시켜 ‘중국문화에 대한 한국문화의 종속성’을 강조한 점에서²²⁾ 그들은 한결 같이 한국의 고소설을 이야기 단계의 설화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한국 고소설이 ‘진지한 문학적 의도(the serious literary intent)’²³⁾가 결여되었거나, ‘시대착오적(les anachronismes abondent)’²⁴⁾인 통속물이라고 단정했다. 이러한 판단은 본인들이 한국 고소설 작품을 직접 읽고 나서 내린 결론이 아니었다. 앞서 한국학 연구의 동기를 다루면서 언급한 것처럼 동아시아 지역학으로서 문헌학 연구가 갖는 한계이면서, 영국소설의 선입견을 동아시아의 소설에 그대로 적용시킨 결과이기도 했다.

3.2. 소설 개념에 대한 인식

고소설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논의는 ‘고소설’의 개념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맞물린다. 『고대소설』에 수록된 자료를 놓고 판단할 때, 스킬렌드가 생각하는 한국의 ‘고대소설’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성행한 ‘신소설’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등장한 이른바 딱지본이라 지칭되는 ‘고대소설’이 아니었다. 그가 규정한 ‘고대소설’은 ‘전근대적 서사물(pre-modern fiction)’이라는 일종의 관념적 실체, 즉 역사물과 수필문학까지 포괄하는 근대 이전의 서사물으로서 그나마 중국의 영향을 받아 성립된 산문문학을 가리킨다.

이른바 고대소설은 1960년대 당시에는 고소설의 개념과 통용되었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고대’의 소설은 아니었다. 이러한 고소설 개념에 대한 인식의 혼란은 18세기 영국소설의 개념에 익숙한 스킬렌드는 물론, ‘노벨’이란 개념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던 1960년대 당시 한국의 국문학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다음의 일화가 이를 잘 말해준다.

1968년 영국 런던 대학교 동양학 및 아프리카 연구소 소속의 W. E. Skillend가 우리나라에 고소설 수집차 왔을 때의 일이다. Skillend가 한국 최초의 고대소설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김기동이 『금오신화』라고 대답하니 그는 다시 몇 세기 소설인지 물었는데, 그 때 김기동은 15세기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W. E. Skillend의 눈이 증발처럼 커졌다. 왜

22) 모리스 꾸랑의 이러한 인식은 이상현·이은령, 「19세기 말 고소설 유통의 전환과 ‘민족지’로서의 고소설- 모리스 꾸랑 『한국서지』 한국고소설 관련 기술의 근대 학술사적 의미」(『비교문학』 제39집, 2013, 46쪽)에서 잘 밝혀 놓았다. 스킬렌드의 『고대소설』에도 국내 유입되거나 재창작된 중국소설을 별도의 기준에 의해 배제하지 않고 모두 ‘고대소설’에 포함시켰다.

23) W. E. Skillend, 『Kode Sosöl: A Survey of Korean Traditional Style Popular Novels』, London: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1968, p. 5.

24) Maurice Courant, 『Bibliographie Coréenne: tableau littéraire de la Corée』, Paris: Ernest Leroux, 1894. p.182.

그만큼 놀랐을까? Skillend는 한국의 고대소설 전공자들은 15세기를 고대라고 알고 있는
냐고 반문하면서, 15세기는 고대가 아니고 중세, 그것도 중세 말기라고 하였다. 그 자리
에서 정주동이 ‘고대소설’의 고대는 시대 개념이 아닌 막연한 옛날이라는 뜻이라고 변명
했지만, 세계 문화 발달사가 고대, 중세, 근대, 최근세, 현대 등의 개념으로 정립되어 있
는 그의 사고로는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²⁵⁾

스킬렌드가 한국을 방문한 1968년은 『고대소설』이 출간된 해이다. 김광순의 기억이 정확하
다면 이때의 스킬렌드는 한국 고대소설이 무엇인지 알면서 물었던 셈이다. 한국의 고소설 전
공자들에게 15세기에 한국소설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스킬렌드가 놀랐던 까닭은 그의 소설
개념이 ‘노벨’ 중심의 영국 소설담론에 의존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한국 고소설을
‘로망(roman)’으로 간주해서 분류한 모리스 꾸랑의 인식과 다르다.

스킬렌드의 ‘소설’ 개념은 근대 이전의 로망 수준인 ‘novels’와 근대소설인 ‘novel’ 또는
‘the Novel’, 그리고 고유명사로서의 ‘고대소설(Kodae Sosöl)’로 구별된다. 『고대소설』의 제
목도 이를 구별하고 있는데 원문에는 “Kode Sosöl: A Survey of Korean Traditional
Style Popular Novels”이라 했다. ‘Korean Traditional Style Popular Novels’은 ‘한국 전
통 스타일의 대중 서사물’이란 뜻이다. 영국에서는 ‘novels’은 ‘소설’의 복수가 아니라, 엄격히
말하면 새로운 인쇄물로 간행한 발라드나 설화와 같은 서사물을 지칭한다.²⁶⁾ 스킬렌드는 『고
대소설』에서 춘향전을 상세하게 다루었는데 그 까닭은 춘향전이 바로 이러한 ‘novels’의 개념
에 가장 잘 부합하기 때문이다.

스킬렌드는 고소설 관련 참고문헌을 영역하는 데도 이러한 원칙이 일관되게 적용했다. 그는
한국 고소설을 시종일관 소설의 전단계인 ‘novels’라고 표기한 반면에, 이인직의 신소설은
“the First Novel”이라고 표기해서 그전의 고소설과 구별했다. 김태준의 『조선소설사』는 “A
History of the Korean Novel”이라 번역하고, 신기형의 『한국소설발달사』는 “A History of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Novel”이라 번역했는데, 그러한 까닭은 신소설까지 다루
었기 때문이다. 신소설을 제외한 박성익의 주왕산의 『고대소설사』는 모두 ‘Kode Sosöl sa’라
번역했고, 김기동의 『이조시대 소설론』은 ‘On the Novels of the Yi Dynasty Period’라 번
역했다.

스킬렌드가 18세기 영국의 근대소설의 개념을 가지고 고소설의 문헌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면, 그가 인식한 한국의 고소설은 “근대소설과 관련된”, “근대소설 전단계의 서사양식”을 가
리킨다. 앞의 일화에서처럼 고대소설을 본격적인 소설로 인정하지 않는 그의 생각은 문학사의
영역에서도 표출되었는데, 기존의 한국문학사는 문헌적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국수
주의적 발상에서 도출된 것으로 간주하기도 했다.²⁷⁾ 당연히 한국 고소설도 소설 단계 이전의

25) 김광순, 「‘고소설’ 용어에 대한 考察」, 『국학연구논총』 제6집, 태민국학연구원, 2010, 131쪽.

26) Lennard J. Davis, 『Factual Fictions: The Origins of the English Novel』,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Philadelphia, 1996, p. 45. “If we move forward along the historical continuum from prose narrative of the Greek, Roman, or medieval periods to the first connection between narrative and print …(중략)…what the sixteenth century called “novels”—that is, printed news ballads and tale.”

27) 이 점에 대해서는 김동욱, 『羅孫書室通信』(한국문학비건립동호회, 1991, 153-154쪽)에 실린 스킬렌

서사산문에 지나지 않았다고 이해했다.

이와 같은 스킬렌드의 한국 고소설에 대한 인식은 『고대소설』의 서론에서 잘 드러난다. 서론의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⁸⁾

(가) 고대소설(Kodae sosöl)는 한국어로 된 전통적인 거의 모든 산문 문학작품을 망라할 뿐만 아니라, 허구적인 이야기, 우화, 신화, 전설을 비롯해서 아주 사실적인 일화, 실기, 전기, 회고록, 일기 및 자서전 등을 포괄한다.

(나)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전통적 등가물이나 근대소설의 선행 형태로 간주된다. 그러나 근대소설과 견줄 만한 ‘진지한 문학적 의도(the serious literary intent)’로 구성된 것은 드물다.

(다) 그것들은 오락물로서 또는 교훈적 이야기로서 대중적 수요에 부응한 것으로 보이는 데, 이런 의미에서 그것들은 전통적인 스타일의 통속적인 서사물(popular novels)로 간주된다.

여기서 스킬렌드는 “이 작업은 고대소설(kodae sosöl)과 관련된 것으로, 특히 전통적 스타일의 한국어 텍스트에서 존재하거나 존재한 적이 있었던 고대소설에 대한 조사이다.”고 밝히면서, 세 가지 관점에서 그의 소설 개념을 밝혔다. (가)의 발언은 한국 고소설이 18세기 영국소설과 대등한 서사갈래가 아니라, 설화나 수필까지 포함한 전근대적 ‘하나의 서사담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비록 근대소설의 선행 형태로 간주할 수 있지만 문학성이 결여된 서사물이라는 것이다. (다)는 교화나 오락물에 불과한 통속적 이야기라는 것이다.

스킬렌드는 2001년 제5회 동송학술공로상을 수상한 「한국 최초의 소설 텍스트(The Text of the First Novel in Korean)」란 논문에서²⁹⁾ 이러한 인식을 구체화했다. 여기서 그는 이인직의 신소설을 문헌학적 관점에서 검토했는데, 신소설 이전에 나타난 홍길동전과 같은 고소설을 본격적인 소설로 간주하지 않는 인식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스킬렌드의 생각은 근대소설의 선행적 형태로서 고소설 자체의 갈래적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고소설의 개념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근대 이전의 서사물은 본격적인 ‘소설’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이다.

널리 알려진 월터 알렌(Walter Allen)의 『영국소설(The English Novel)』이나 이언 와트

드의 영문편지에서 확인된다. 김동욱은 1974년에 일본어로 쓴 한국문학사를 캐나다인 레온 허비츠(Leon Hurvitz)에게 영역하게 했는데, 스킬렌드가 이러한 영역본 한국문학사의 원고를 검토하면서 남긴 편지에 한국문학의 국수주의적 태도를 경계했다.

28) W. E. Skillend, 앞의 책, p. 5. “This work is concerned with kodae sosöl, particularly with investigating what kodae sosöl exist or have existed in texts in Korean in a traditional style. Kodae sosöl comprise almost all prose works of traditional literature in Korean, and they include not only fictional stories, fables, myths, legends and so on, but also very factual anecdotes from history, biographies, and even memoires, diaries and autobiographies. They are generally considered to be the traditional equivalent or the predecessor of the modern novel, but it has seldom been suggested that they were composed with the serious literary intent that can mark a modern novel. They appear to be rather a response to a popular demand for entertaining and/or edifying stories, and in this sense they may be regarded as popular novels in a traditional style.”

29) W. E. Skillend, 앞의 논문, 21-62쪽.

(Ian Watt)의 『소설의 발생(The Rise of the Novel)』에 따르면, ‘소설(the Novel)’은 18세기 근대 산업사회의 변화에 따라 발생한 문학의 한 갈래이다. 이에 비해 인도, 중국, 한국에서의 연구자들은 소설이 근대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간주했다. 이를 논증한 대표적인 저술이 루선의 『중국소설사략』이다. 스킨랜드가 인용한 영역본 『중국소설사략(A Brief History of Chinese Fiction)』은 1959년 북경(北京) 외문출판사(外文出版社)에서 발행되었는데, 중국인 양셴이(Yang Hsien-yi, 楊憲益)와 글래디스 양(Gladys Yang)이 공동 번역했다. 영역본의 제목에서는 중국소설을 ‘픽션’이라 했지만 본문에서는 ‘샤오슈어(小說, Hsiao-shou)’라고 별도의 원어 표기를 하고, 명대(明代) 이전의 소설은 로망(Prose Romance), 16세기 이후 명대의 소설은 노벨(novel)로 구분해서 번역했다. 영역본 『중국소설사략』에서는 이른바 동아시아소설의 개념과 성립시기가 영국소설의 그것과 다르다는 점을 유럽인들에게 보여주었다. 유럽학자들은 이러한 동아시아 학자들이 주장하는 소설의 성립 문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³⁰⁾ 스킨랜드의 『고대소설』도 아시아소설의 성립에 대한 문헌적 검토의 필요성에 의해 시도되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서 스킨랜드는 케임브리지에서 영국의 대표적인 소설가이자 소설이론가인 E. M. 포스터와 자리를 같이 한 적이 있다고 했다. 영국소설이 18세기 산문문학의 전통에서 생겨난 것을 주장한 이언 와트도 케임브리지의 세인트존슨 칼리지 출신이고, 스킨랜드의 소설 개념도 이들의 문화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점에서 그는 동아시아소설의 성립 문제에 당연히 반발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문화와 제국주의』란 저술을 통해 영국소설은 다분히 제국주의적 담론에 근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고소설에 대한 스킨랜드의 인식도 거시적으로 이러한 범주에서 살펴볼 여지가 있다. 그의 『고대소설』은 중국문화의 영향을 받은 한문과 민족어인 국문이란 이중적 언어로 서술된 문헌자료를 체계화한 고소설 목록이지만, 삼국지나 수호지와 같은 중국 소설작품까지 포괄한 시각은 다분히 아시아소설을 의식한 결과로 나타난다. 이러한 문헌들을 ‘노벨’이 아닌 전통적인 서사물로 파악하고 이를 하나의 범주에서 다른 점에서 제국주의적 담론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다시 말해 한국 고소설 문헌자료를 통해 아시아소설의 전근대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영국의 문화상품인 근대적 ‘노벨’로의 발전 가능성을 타진한 것이 『고대소설』이란 저술로 나타났다고 하겠다.

3.3. 고소설 인용서목과 담론의 계보

스킨랜드의 『고대소설』은 방대한 고소설목록을 제시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 수많은 한문본 소설의 귀속 문제를 비롯해서 한글 번역본과 번안 작품들을 정리하여 계보를 작성하는 과정에 서 소설에 대한 인식도 담론의 형태를 통해서 드러나기 마련이다.

고소설 목록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1966년까지 생산된 국문학의 연구성과를 일부 제외하고(안학의 『조선문학사』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분 반영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따라서 『고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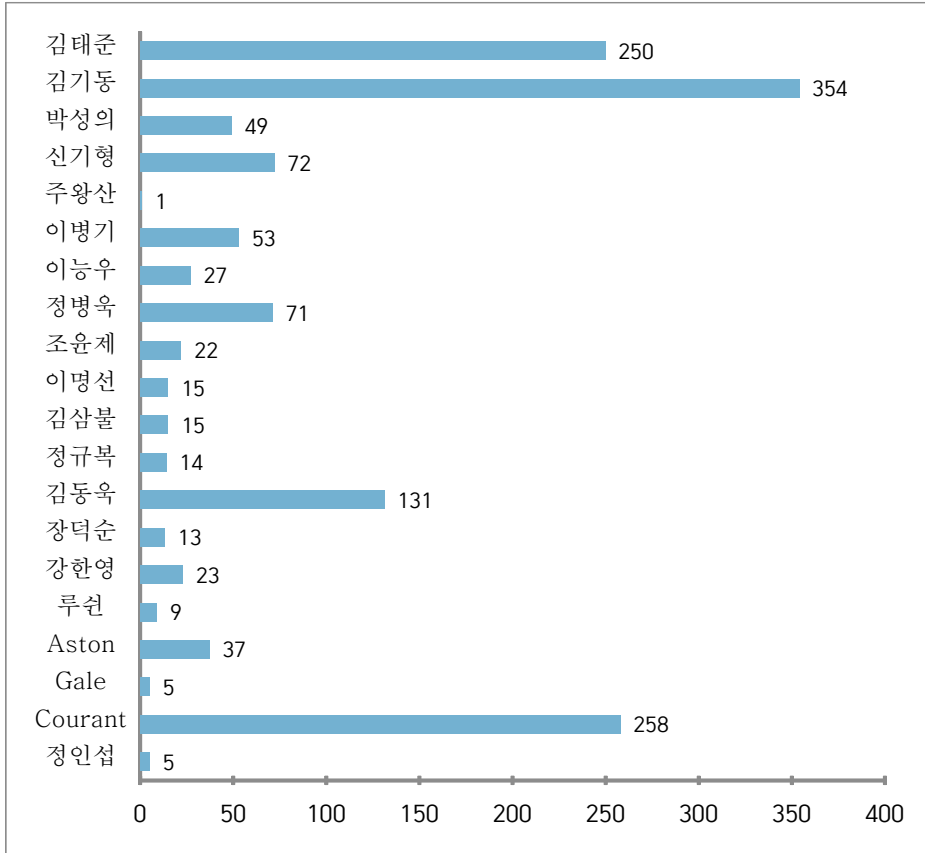
30) 유럽의 소설이론을 아시아 소설에 적용시키려는 학술적 논쟁에 대해서는 김진곤 편역, 『이야기 小說 Novel: 서역학자의 눈으로 본 중국소설』(예문서원, 2001)을 참고하기 바란다.

소설』에 내재한 고소설 담론을 검토하고자 할 때, 문헌학으로서의 지역학 담론과 연구사로서 국문학 담론에 대한 인식과 그 계보를 파악하는 일은 요긴한 과제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그가 한국학을 연구하게 된 동기를 고소설 담론의 형성문제와 관련지어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

『고대소설』에서 인용한 24종의 국내외 학술서를 살펴보면, 이능화(1927)의 『조선여속고』와 정노식(1940)의 『조선창극사』, 이선유(1947), 『五家全集』 이외에, 국문학사로는 이명선(1948)의 『조선문학사』, 조윤제(1954)의 『국문학사』, 이병기·백철(1957)의 『국문학전사』가 있으며, 국문학개론은 우리어문학회 편(1949)의 『국문학개론』, 구자균·김형규·손낙범(1955)의 『국문학개론』, 이능우(1954)의 『국문학개론』, 이병기(1961)의 『국문학개론』이 있다. 소설사 관련 저술로는 김태준(1933, 1939)의 『조선소설사』, 『증보 조선소설사』, 주왕산(1950)의 『조선고대소설사』, 박성익(1958)의 『한국고대소설사』, 신기형(1960)의 『한국소설발달사』가 있으며, 이밖에 김기동(1956, 1959)의 『한국고대소설개론』과 『이조시대소설론』 및 김삼불(1950)의 『배비장전·옹고집전』, 김동욱(1965)의 『춘향전연구』, 정주동(1966)의 『홍길동전연구』가 인용되었다. 국외학자들이 저술한 논저는 모리스 구랑(1894)의 『한국서지』, 前間恭作(1944-57)의 『古鮮冊譜』, W. T. De Bary & A. T. Embree(1964)의 『A Guide to Oriental Classics』, 루헌(1959)의 『A brief History of Chinese-Fiction(中國小說史略)』 등이 있다.

또한 스킨렌드가 인용한 고소설 관련 학술논문은 모두 18종인데, W. G. 애스턴(1890)의 「On Corean Popular literature」와 「Chhoi-chhung, a Corean Märchen」을 비롯해서 조윤제(1939)의 「춘향전 이본고」, 장덕순(1953, 1959, 1959)의 「이춘풍전연구」, 「몽유록소고」, 「병자호란을 전후한 전쟁소설」, 이해구(1955)의 「송만재의 觀優戲」, 정병욱(1955)의 「崔文獻傳 紹介」, 이명구(1955)의 「구운몽攷」, 김동욱(1955, 1960)의 「판소리發生攷」, 「한글소설 방각본의 성립에 대하여」, 김용숙(1959), 「인현왕후전 작자考」, 정규복(1961)의 「구운몽 異本攷」, 최상수(1961)의 「A Study of the Korean Puppet Play」, 양재연(1962)의 「김태자 평설」, 박성익(1962)의 「계상국전 소고」, 박성익(1963), 「미발표 고대소설攷」, 이능우(1964), 「이야기冊 “古代小說” 板本誌略」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고대소설』에 언급된 주요 논저자들의 인용횟수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도표1>



<도표1>에서 정병욱의 인용횟수가 71회에 이르는 것은 스킬렌드가 서울대학교 소장 고소설을 직접 열람하는 과정에 그의 자문을 널리 구한 덕분이다. 모리스 꾸랑(258회)과 김기동(354회) 및 김동욱(131회) 등의 인용횟수가 많게 나타나는 것은 고소설목록 작업에 필요한 문헌적 정보를 앞서 세 사람의 논저에서 주로 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소설사에 대한 주요 저술가로 『고대소설』의 서문에서 소개된 김태준, 박성익, 신기형 등의 인용횟수는 고소설 해제에 필요한 정보를 많이 수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낮게 나타난다. 주왕산의 『고대소설사』는 그가 구해 읽지 않았다는 점에서 예외로 해도 나머지 고소설사의 비중은 낮게 평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되는 바는 최초의 소설사인 김태준의 『조선소설사』가 250회 인용되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고대소설』의 담론에는 문헌학적 층위와 문학사적 층위의 두 흐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문헌학적 흐름은 모리스 꾸랑에서 김동욱, 김기동으로 이어지는 계보이고, 문학사적 흐름은 루쉰, 김태준, 박성익, 주왕산, 신기형으로 이어지는 계보이다. 여기서 스킬렌드는 루쉰(9회)의 『중국소설사략』을 중국소설의 영향 차원에서 소략하게 인용하고 중국소설 자체의 성립문제는 적극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고소설 목록작업에 참고한 국내 저술에 있어서는 동일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한국 고소설의 해제에 주력한 김기동의 저작물을 대폭 인용하면서 별다른 비판적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반면에 소설사의 문제를 다룬 김태준에 대해서는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 그는 김태준

이 조선소설사 분야의 개척자임을 인정하고 그 자신을 포함하여 그를 따르는 모든 이들이 그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고백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 고대소설에 관련한 그의 역사적인 진술이 오늘날 시점에서 거의 모든 지점에서 문제시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함께, 후속 연구자들에 의해 인용되는 그의 말들을 그의 저작에서 주의해서 읽을 필요가 있다고 하고, “얼마간 사실적 정보의 중요성(little factual information of importance)”을 놓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³¹⁾ 『고대소설』에서 인용된 김태준의 『조선소설사』는³²⁾ 모리스 꾸랑이나 김기동의 경우와 달리, 한국 고대소설사에 대한 실증적 검토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스킬렌드에 의해 지적된 김태준의 문제점은 18세기 영국소설과 다른 방향에서 독자적으로 전개된 자국 소설사의 서술 문제이기도 했다. 김태준은 『조선소설사』의 첫 대목에 소설의 정의를 말하면서, 먼저 『중국소설사략』에서 소개된 소설의 정의를 얘기하고, 다음 순서로 키무라(木村毅)의 『소설연구십륙강(小説研究十六講)』(新潮社, 1925)의 번역을 취해 롱(William Joseph Long)의 소설의 정의를 소개한 다음,³³⁾ “예전사람들이 意味하는小説은 헤일 수없이 많다.”³⁴⁾고 주장했다. 김태준의 주장은 15세기 금오신화에서 출발하는 조선소설과 소설사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루선의 『중국소설사략』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동아시아의 소설 개념에 근거한 것이었다.³⁵⁾ 이러한 주장은 동아시아 소설을 전근대적 서사물로 파악한 문헌학적 계보와 다른 층위에서 전개된 소설담론이었다. 그러나 실증적 문헌학으로 접근한 스킬렌드의 관점은 이와 다르게 나타났다.

<도표1>에 의하면, 스킬렌드는 모리스 꾸랑, 애스턴, 게일 등의 저술을 대폭 인용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고대소설』이 초기 한국학자들의 업적을 계승한 성과물이란 사실은 부정할 수 없

31) W. E. Skillend, 앞의 책, p. 8. “Kim T'aejun was the pioneer in this field with his Chosŏn Sosŏl sa, “A History of the Korean Novel” (1930-31, 1933 and 1939), and all who have followed him, including myself, owe him a very great debt. Neither the fact that his historical account may now be questioned at almost every point, as far as kodaesosŏl in Korean are concerned, nor the fact that almost every word which he wrote has been quoted by at least one subsequent critic, should deter anyone from reading his work, but it is not easy to find now, and the same two facts do at least mean that one misses little factual information of importance if one cannot read it.”

32)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김태준의 『조선소설사』는 세 종류의 저작이 있는데, 하나는 1930년 10월 31일에서 1931년 2월 14일까지 동아일보에 연재된 ‘조선소설사’이고, 다른 하나는 1933년 청진서관에서 간행된 『조선소설사』이며, 마지막 하나는 1939년에 학예사에서 간행 『증보조선소설사』이다. 『고대소설』에는 이러한 세 종류의 존재를 모두 언급했지만, 스킬렌드가 『고대소설』에서 주로 인용한 책은 1939년판 『증보조선소설사』이다.

33) 김태준, 『증보 조선소설사』(학예사, 1939), 12쪽. “그러나 노-벨의 定義는 것처럼簡單히 된것이 아니고, 學者와文人의 사이에 많은 議論이 있다. 이에는 다만 英國文人 롱-(Long)氏의 定義를 빌려서 的確한 概念을 定할까 한다-. “정말 小説이라는 것은 平凡한 人間生活의 實話를 高調한 情緒로서 말하되 創作的 興味를 波瀾과 冒險에 向치 아니하고 眞實한 自然에 根據를 둔 談話의 著述이다.” 이에 대한 영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William J. Long, 『English Literature: Its History and Its Significance for the Life of the English Speaking World』, Boston: Ginn and Company, 1909, p.344. “Notwithstanding this long history of fiction, to which we have called attention, it is safe to say that, until the publication of Richardson's ‘Pamela’ in 1740, no true novel had appeared in any literature. By a true novel we mean simply a work of fiction which relates the story of a plain human life, under stress of emotion, which depends for its interest not on incident or adventure, but on its truth to nature.”

34) 김태준, 앞의 책, 13쪽.

35) 김하림, 「魯迅과 金台俊의 小説史연구」(중국어문연구회, 『중국어문학논총』 제22집, 2002), 480-481쪽.

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자국 소설사가 등장하기 이전에 아시아 지역학을 시도했던 애스턴과 모리스 꾸랑이 문헌자료의 목록작업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그 이후 스킬렌드의 연구는 이들의 선행연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갔다. 한국소설사의 기초를 실증적 문헌학으로 재검토한 것이다. 실증적 자료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는 한국소설의 성립시기를 의문시하고 근대 이전의 한국 고소설을 ‘고대소설’이란 이름으로 분류하여 그 실체를 방대하게 조사했다. 그 결과 현재 유통되는 홍길동전과 구운몽이 허균과 김만중 시대의 작품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³⁶⁾

그러나 스킬렌드가 시도한 실증적 문헌학이 한국문학을 부정적으로 인식한 애스턴과 이언 와트 계열의 소설담론에 근거한 것이라면, 한국소설의 개념을 그들의 방식으로 일률적으로 재단할 수 없다는 한계가 주어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김태준의 주장은 자국 문학사의 관점에서 역사주의적 해석을 중시한 것으로 드러난다. 김태준이 『조선소설사』에서 드러낸 서술 의식은 스킬렌드뿐만 아니라, 문헌적 자료를 우선시하는 김동욱과 김기동의 고소설 담론과도 다르다.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판본들의 실증적 자료만으로는 텍스트의 생성과 사회적 맥락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김태준 계열의 문학사적 담론이다. 이에 비해 스킬렌드의 문헌학적 담론은 고소설 문헌자료에 대한 조사가 문학연구의 토대일 뿐만 아니라, 문학사 서술의 골격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 인식한 것이다. 『고대소설』에는 이러한 두 계열의 담론이 혼재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목록작업과 병행하여 고소설 담론에 대한 이해가 절실하다는 사실을 일러 준다.

4. 『고대소설』의 연구사적 의의

다음으로 고소설 담론의 계보를 검토하는 작업과 아울러, 외국인 학자가 제시한 인문학적 담론의 존재를 오늘날 어떻게 수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물음에 답할 차례이다. 이는 고소설연구사에서 스킬렌드의 업적이 어떠한 의의를 지니는가를 검토하는 과제에 해당하는데, 거시적으로 내재적 한국학과 외재적 한국학의 상호관계를 파악하는 맥락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재적 한국학이 실증적 문헌연구 방법이라면, 외재적 한국학은 지역학으로서의 한국문학에 대한 인식 문제이다. 이를 통해 해외 실증적 문헌학과 한국 고소설의 학문적 성과를 통합하는 차원에서 논의를 집약할 필요가 있다.

4.1. 실증적 문헌연구 방법 제시

『고대소설』은 고소설 판본 자체의 서지학적 검토뿐만 아니라 1968년 이전에 출판된 각종 소설사, 국문학사, 국문학개론 및 한국문학 관련 해외 학술논저까지 망라하고 있는데, 1894년에서 1967년까지의 한국 고소설에 대한 국내외 학술적 담론을 포괄하여 현재까지 해외에서 이 방면의 고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한 명성에 대한 대표적인 증거로 게리 레드야드(Gari Ledyard)의 편지 내용을 들 수

36) W. E. Skillend, 앞의 책, pp. 242-244, pp. 50-54.

있다. 이 편지는 스킨렌드의 임종 소식을 전해 듣고 인터넷에 올린 글이다.

한국학자로서 윌리엄 스킨렌드는 『고대소설』의 잘 알려져 있다. 이 책은 요즘 쉽게 구하기 어렵지만 누군가 새로운 인쇄물로 재간행해서 비치할 수 있게 한다면 아주 좋아할 것이다. 왜냐하면 윌리엄 스킨렌드는 수많은 한국 고소설의 수량만큼 여러 차례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도서관까지 찾아가 자료조사를 했는데, 한국소설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분석 내용의 풍부함에 있어서 아직까지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 그가 제시한 목록은 모두 531종이다. 많은 한국학자들이 이 분야를 얼마간 탐구했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이 책의 수준처럼 철저하고 독창적이며 체계적인 그들의 성과물을 제시하지 못했다. …(중략)… 서문에서는 비록 1968년의 것으로 명시했지만, 한국어로 된 전통적인 픽션을 소개하기 위한 자료로서 오늘날까지 여전히 많은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이 책의 주된 목적은, 윌리엄 스킨렌드가 고소설의 전통적 한문(漢文) 판본까지 추적해서 목록화하고, 명료하게 설명하는 작업을 한층 더 심화시켜 판본이 언제 성립되었고, 최초의 것이 무엇이며, 번역에 필요한 각종 가능한 원본이 무엇인가 하는 점들을 밝힌 것에 있다.³⁷⁾

여기서 드러난 게리야드의 인식은 『고대소설』에 기대는 해외 한국학자들의 태도를 그대로 반영한다. 그는 스킨렌드의 『고대소설』이 그 이전의 어느 것보다 철저하고 독창적이며 체계적이라 했다. 번역에 필요한 정본(定本)의 선택 문제도 『고대소설』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1971년에 발표된 정병욱의 서평에서도, 이와 같은 스킨렌드의 실증적 문헌연구는 국문학 연구가 본격화되는 1960년대에 한국학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근대 실증주의적 문헌학을 도입함으로써 한국 문헌학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고대소설』에 적용된 스킨렌드의 문헌학적 방법은 현존하는 문헌자료를 중시하는 형태서지학(physical or material bibliography) 계열의 방법론에 속한다. 형태서지학은 서적의 물리적 형태에서 발견되는 여러 이본들의 존재와 그 변천 과정을 조사, 연구, 종합하여 판본의 성격과 출현 시기를 고증하고 기술하는 분야이다. 이 분야의 연구는 판본의 기원, 각종의 명칭, 이본의 종류 및 유통과정, 판본의 인쇄 형태와 관련된 목판본, 활자본 기타 간인본(刊印本)의 종류와 특징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다.

37) "As a Korea scholar, Bill Skillend is best known for his <Kodae Sosol: A Survey of Korean Traditional Style Popular Novels>, pp. 268, (Luzac & Co., Ltd., London, 1968). This may not be so easy to find these days, so it would be nice if someone might arrange a new printing, because it is still very useful for its analytical richness and its detailed survey of as many traditional Korean novels as Bill could track down in Korea and Japan, as well as in libraries in the U.S. and Europe. His listing has 531 entries. While many Korean scholars had been exploring this field for some time, none of them had come up with a presentation of their results as thorough, original, and systematic as this book. (As has already been noted, it did not take long for a pirated Korean edition to appear.) The introduction alone was a revelation in 1968, and could still serve today as a resource for introducing traditional fiction in the Korean language. That was the main purpose, but Bill went even further in tracking down and listing traditional Hanmun versions of these works, and in clarifying, when it was possible to do so, which came first, and which of various possible texts had been the basis for the translation."

http://koreaweb.ws/pipermail/koreanstudies_koreaweb.ws/2010-February/007778.html

필로로지에서 출발한 이러한 실증적 문헌학이 스킬렌드에 의해 『고대소설』이란 저술로 국내 소개된 이후로 그의 업적은 한국의 문헌학자들에게는 극복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제시한 고소설목록이 지닌 가치와 그 의의는 본격적인 고소설 문헌학의 지평을 열어주었다.³⁸⁾ 스킬렌드 이전에는 경성제국대학 출신의 제1세대 국문학자들에 의해 식민지학으로서의 조선학이 사실상 문헌학의 주류를 형성해 왔지만, 대개 문헌자료의 발굴과 해제에 그쳐서 자국 문학사 서술에 있어서 자료 나열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못했다. 식민지학에서 출발한 초기 한국 문헌학의 실정은, 대상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면서 각종 이본의 존재와 유통 과정 및 서술자의 비판적 의식을 명기한 근대적 문헌연구와는 일정한 거리가 있었다.

고소설 문헌학에서 목록정리와 판본조사는 장기간의 노력이 수반되는 힘든 일이다. 대부분의 한국 고소설은 창작시기가 밝혀지지 않았고 다양한 이본을 가지고 있다. 이본마다 작품의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실증적인 문헌연구가 이루어진 후에 구체적인 목록 작업이 가능하다. 『고대소설』에 대한 정병욱의 서평은 그동안 침체되었던 국내 문헌학의 과제를 환기시키는 의미도 있었다. 스킬렌드 이전의 모리스 꾸랑도 한문 번역소설, 한문 창작소설, 중국 배경 한글 소설, 한글 창작소설 등으로 분류했지만, 이본에 대한 개념이나 고소설의 유통과정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부족했다. 목록작업은 판본 선택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스킬렌드의 『고대소설』은 모리스 꾸랑의 『한국서지』에서 보여준 필로로지 계열의 방법을 한 단계 발전시킨 것으로 간주된다. 이본이 다양한 고소설 연구에서 판본 선택의 여부는 해당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스킬렌드 이전에는 이러한 문제의식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정병욱이 그의 서평에서 스킬렌드의 학술적 성과를 문헌학적 연구의 본보기가 되고, 실증적 방법의 표본이며, 목록학의 뛰어난 업적이라고 극찬한 까닭은 여기서 찾을 수 있다. 고소설 문헌을 실증주의 방법으로 고증하여 개별적 형태로 흩어져 있는 문헌들을 체계화하여 한국 고소설 문헌의 계통론을 정립시킨 점을 높이 산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외의 호평과 달리, 1972년에 소개된 피터 리(Peter H. Lee)³⁹⁾의 서평은 세 가지 측면에서 『고대소설』의 한계를 지적했다.⁴⁰⁾ 첫째는 삼국지연의, 전등신화, 수호지, 서상기, 홍루몽, 금고기관과 같은 중국 작품을 한국문학으로 포괄하는 태도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비록 이러한 작품들이 한국 전통 서사문학에 끼친 영향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과연 한국 문학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영국의 경우, 16세기 영국의 통속물인 플루타르크 영웅전이나 세네카의 문학작품을 영국문학사에 귀속시키려는 어떠한 노력이 없었다는 점을 상기시켰

38) 이러한 평가는 김동욱, 「해외국문학자료수집잡기」(일지사, 『한국학보』 권2, 1호, 1974, 48-52쪽)와 정병설, 「영국도서관 소장 경판한글소설 재론」(『고전문학연구』 제42집, 2012, 145-165쪽)에서 재확인된다.

39) 1929년생인 피터 리는 한국인 이학수(李鶴洙)이다. 1953년에 미국 예일대학에서 석사학위를, 1958년에 독일 뮌헨대학(Ludwig-Maximilians-Universität München)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60년 컬럼비아대학에 재직할 이후, 하와이대학과 버클리 캘리포니아대학에서 한국어와 한국학을 가르쳤고, 1987년부터 2 LA 캘리포니아대학 동아시아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다가 2007년에 퇴임했다. 현재 UCLA의 명예교수로 있다. 2003년에 『한국문학사(A History of Korean Literature)』를 케임브리지 대학출판부에서 출간하기도 했다. 이 서평은 1972년 하와이대학에 재직할 무렵에 쓴 글이다.

40) Peter H. Lee, 「Kode Sosöl: A Survey of Korean Traditional Style Popular Novels by W. E. Skillend Review」,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Vol. 92, No. 1, 1972, pp.159-161.

다. 둘째, 표제의 배열에 있어서도 문헌학과 역사적 상상력이 고려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감식안의 결핍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고소설의 제목에 흔히 나타나는 전(傳), 록(錄), 기(記)란 전통적 서사문학의 양식을 일반적인 역사물의 양식과 비교하여 체계적으로 분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는데, 작품의 내용에 따라 아르네-톰슨(Aarne-Thompson)의 모티프 유형분류를 적용시켰다면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서구인들의 한국문학 연구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에 부응하려면, 수많은 자료를 열거하기보다 최근 한국에서 이루어진 연구성과들을 소개해야 하는데 이점에도 인색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물론 스킨렌드의 『고대소설』은 오늘날 시점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960년대 당시 국문학계의 사정으로 미루어 대상 문헌자료에 대한 치밀한 예비적 작업이 선행된 이후에 고소설 문헌학의 학문적 계승과 발전이란 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한 점에서 국문학연구사에 기여한 그의 학문적 기여는 과소평가될 수 없다. 스킨렌드에 의해 근대적 문헌학이 소개되어 식민지학으로서의 조선학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한국학을 정립시키는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해 준 점에서 국문학 연구사에서 기억될 소중한 성과라고 평가된다.

4.2. 동아시아 지역학으로서의 한국소설

동아시아 지역학으로서의 문헌학적 방법은 현존하는 문헌자료를 대상으로 현재의 시점에서 그 가치를 평가한다. 그러나 문학 텍스트의 연속성을 근간으로 하는 문학사적 방법은 그 대상을 과거에서 현재의 시점으로 옮겨와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그 가치를 평가한다. 따라서 문헌학의 방법을 문학연구에 그대로 적용시킬 경우, 자국의 문학사 서술에 필요한 역사적 지식의 성립과정을 재현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특히 문헌의 생성과 유통에 관련한 역사적 문헌기록을 배제할 우려가 있는데, 『고대소설』의 경우는 18세기 국문본 고소설의 유통 사실을 기록한 「상서기문」의 내용이나 17세기 허균의 홍길동전 창작설도 수용하지 않았다. 이처럼 문헌기록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회적 변란으로 소실된 텍스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역사적 사실과 괴리가 있는 문학사를 서술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오류는 지역학 담론의 차원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

스킨렌드는 고소설 판본을 해설하기 위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수많은 컬렉션과 고소설 연구의 성과물을 소개했다. 그 과정에 영어권 한국학 연구자들을 위해 ‘국내 한국학자의 판본 해설에 대한 해설’이란 이중적 담론을 전개했는데, 이는 고소설 문헌을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한국 고소설 담론의 존재를 의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중적 담론의 대표적인 대상은 김태준의 『조선소설사』인데, 이 점은 『고대소설』에 일관된 실증적 문헌 분석과 비평이 대개 한국 고소설의 생성시기에 대한 검토가 주류를 이룬 점에서 잘 드러난다.

『고대소설』에서 스킨렌드는 한국 고소설의 생성 문제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왕랑반혼전이나 인현왕후전과 같이 17세기에 존재했던 고소설을 각각 1776년과 1940년대의 것으로 비정(批正)했다. 왕랑반혼전의 경우, 1776년 해인사본보다 더 이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대의 가람·일사문고 소장 국문본 화엄사본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직접 확인

하지 않았다고 했다. 화엄사본은 1637년의 고소설이었다. 인현왕후전에서도 마찬가지로 태도를 보였다. 인현왕후전은 17세기 숙종조의 고소설인데, 1940년대 판본인 가람 이병기 소장본을 택하고 그 이전의 판본으로 알려진 일사 방종현의 판본은 애써 확인하지 않았다. 이러한 스킬렌드의 편향적 태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대표적인 한국 고소설인 홍길동전과 구운몽에 서도 그러한 태도가 확인된다.

먼저 구운몽의 경우를 살펴보면, 목판 한문본인 계해본을 중심으로 구운몽의 창작시기를 1803년으로 비정하고, 김춘택에 의한 한문 번역설이 근거가 없다고 하여 김만중의 국문 창작설을 부정했다. 국내 학자들에 의해 초기 판본으로 밝혀진 서울대 국문본은 간기(刊記)가 명시되지 않다는 이유로 취하지 않았다. 홍길동전의 경우는, 이식(1584-1647)의 『택당잡저(澤堂雜著)』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1889년에 이루어진 알랜(Allen)의 번역본보다 선행하는 판본이 국내에 없다는 것을 근거로 국내 학자들이 주장하는 허균의 국문 창작설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또한 스킬렌드가 주요 참고문헌으로 택했던 김태준(1933)의 『조선소설사』, 박성익(1958)의 『한국고대소설사』, 신기형(1960)의 『한국소설발달사』, 김기동(1959)의 『이조시대소설론』에 공통적으로 언급된, 일본 내각문고(內閣文庫)에 현존하는 1653년의 판본인 『금오신화』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정병욱(1955)의 「崔文獻傳紹介」라는 논문을 읽었다고 하면서 그 논문에 소개된 신독재 수택본 『금오신화』의 존재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소설인 『전등신화(剪燈新話)』는 언급하면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국내에 유입되어 한국어로 번역했다는 김태준의 『조선소설사』 서술 태도의 비판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스킬렌드는 16세기에 수호자(垂胡子) 임파(林芭)가 주석(註釋)한 『전등신화구해(剪燈新話句解)』를 국문 번역본으로 착각하고 문맥을 오독한 것이었다. 또한 그는 『전등신화』를 모방한 국문소설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하면서 『전등신화』의 초기 유입설을 반박한 것도 한국 한문소설의 전통에 무지한 탓이었다.

스킬렌드가 제시한 문헌학적 비판은 실증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고소설 관련 역사적 문헌 기록을 배제한 점에서 부분적으로 객관적 타당성을 상실한 면모를 드러내었다. 이러한 오류가 한국소설의 성립시기와 관련된 대목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미루어 스킬렌드의 문헌학적 연구는 오리엔탈리즘에 근거한 동아시아 지역학의 범주에서 머물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고소설을 중심으로 한 오리엔탈리즘의 시초는 모리스 꾸랑의 『한국서지』에서 엿볼 수 있는데,⁴¹⁾ 그 뒤 애스턴의 「한국 대중문학에 대하여(On Corean Popular literature)」란 논문도 같은 맥락에서 한국문학의 부재론을 제기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실증적 문헌학으로 접근한 고소설 담론은 역사적 문헌기록을 중심으로 하는 자국 소설사에서 그 한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실증적 근거가 미비한 김태준의 소설사가 실증적 문헌학에 근거한 스킬렌드의 『고대소설』에 의해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은 학술적 논쟁에서 당연한 귀결이다. 하지만 소설사를 서술하는 의의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문학사적 담론은 실증적 문헌학의 한계를 자각하고, 대상 텍스트의 유통과 관련된 문학외적인 문헌기록까지 탐구함으로써 역사적 흐름을 모색하기 때문이다. 역사적 문헌기록과 이에 대한 해석에 근거한 소

41) 이상현·이은령, 앞의 논문, 39-55쪽.

설사는 소설문학이 일종의 내면적 정신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텍스트 자체의 실증적 증거물을 중시하는 형태서지학과 구별된다. 실증적 문헌 검토라는 학문적 기초가 튼실하지 않았던 소설사 기술은 당연히 비판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식민지 상황에서 부실한 자료와 문헌기록에 의존하여 민족문학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김태준 계열의 소설담론은 실증적 문헌학과 대립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오히려 문학사적 담론은 문헌학적 담론과 상호 보완하는 관계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 고소설을 영국소설의 관점으로 단죄한 스킨렌드의 문헌학적 연구는 『고대소설』이란 저술로 한국에 ‘노벨’이 자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했다. 이러한 주장은 무리한 측면이 없지 않았지만 역설적으로 문헌학적 토대가 부실한 한국 고소설 학계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고대소설』의 출현을 전후해서 이능우, 김동욱, 정규복과 같은 제2세대 국문학자들은 고소설 개념의 정립과 문헌연구에 분발하여 스킨렌드의 문헌학이 소설사의 관점에서 상호 보완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⁴²⁾ 이에 따라 제3세대 국문학자인 황패강, 조동일, 김광순 등에 의해 ‘고대소설’도 본격적인 ‘소설’이란 주장이 가능했고, 특히 조동일은 『소설의 사회사 비교론 1』에서 유럽 중심의 소설론을 전면 비판하고 ‘소설’은 근대의 산물이 아니라,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에 자생한 문학의 한 갈래”라고 주장했다.⁴³⁾ 이러한 주장은 식민지배 담론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의 고소설을 영국 또는 유럽이 아닌 세계문학사의 판도에서 보편적인 소설 갈래로 인식할 것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결과적으로 스킨렌드의 『고대소설』은 인문학의 대상으로서 한국 고소설을 동아시아 소설사의 판도에서 어떻게 인식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국내 학자들에게 일깨워 주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국내외에 존재하는 고소설 담론의 존재를 환기시킴으로써 소설사의 인식을 한 단계 발전·심화시킨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5. 마무리

본 연구에서는 윌리엄 스킨렌드의 학문적 성과와 연구사적 의의를 검토하면서 국내외 관련 저작물에 나타난 파급 효과와 학술적 공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는 해외 한국학 연구성과를 오늘날 시점에서 검토, 수용하여 한국학의 지평 확대와 함께 질적 수준을 고양하는 방안으로 시도되었다. 오늘날 거시적인 관점에서 고소설 담론의 계보를 그려내는 작업은 국문학 연구의 성과가 축적된 인문학적 배경 및 국문학 연구사에 내재한 담론적 층위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안목이 요구된다.

여기서는 『고대소설』에 수용된 연구사로서의 고소설 담론을 다루었다. 고소설 담론은 1930년대 김태준이 『조선소설사』에서 제기한 이후, 소설사의 체계에 많은 관심을 가진 후속 연구자들에 의해 계승되어 주왕산의 『조선고대소설사』(1950), 박성익의 『한국고대소설사』(1958), 신기형의 『한국소설발달사』(1960)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고소설 담론은, 『고대소설』처럼 고소

42) 그러한 대표적인 성과로는 류탁일의 『한국문헌학연구』(아세아문화사, 1989)와 정규복의 『한국고소설사의 연구』(한국연구원, 1992)를 들 수 있다.

43) 조동일, 『소설의 사회사 비교론 1』(지식산업사, 2001), 35-111쪽.

설의 목록을 정리하고 판본을 확정하는 문제와 함께 다양한 이본들의 유통 경로를 밝히는 과정에서 드러나는데, 자국 소설사와 대립된 관점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고소설 담론의 존재를 규명하는 일은 문학사 서술에 있어서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견지하는 데 요긴한 작업이다.

『고대소설』은 실증적 작업을 통해 한국 고소설의 목록학을 정립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한편에 있어서 한국학을 이해하는 지역학 담론으로서 시도된 실증적 문헌연구 방법이 유럽 중심의 오리엔탈리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물론 『고대소설』의 서론에서 언급한 실증적 문헌학의 방법이 본론에서 제시되는 고소설 자료 분석에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았다는 문제점도 있었지만, 이러한 오류를 범한 주된 이유로는 소설 갈래에 대한 그의 인식에서 찾을 수 있었다. 개별적 판본에 대한 스킬렌드의 문헌적 해제가 영국소설에 기반한 지역학적 시각에서 재단되었던 부분도 있었다. 그러나 스킬렌드가 소개한 근대적 문헌연구방법은 과거 한국 문헌학의 판도를 바꿔놓은 중요한 계기를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소설 문헌의 계보를 추적하는 가운데 언급된 국내외 소설담론의 존재를 알려주었다.

또한 『고대소설』은 원본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중요성을 제시하여 한국 고소설사의 문제점을 보완시킨 중요한 공헌을 했는데, 대내적으로는 1950년대 이후 분단된 상황에서 그 학술적 성과가 도외시되었던 김태준이나 이명선 등의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거론함으로써 고소설 담론의 소통을 시도했고, 대외적으로는 중국소설을 번역 또는 번안한 작품의 존재까지 다루어 동아시아 담론의 차원에서 한국 고소설을 조망하게 했다. 또한 고소설의 해외 번역 상황까지 소개했다는 점도 한국학의 세계화라는 관점에서 마땅히 평가되어야 할 몫이다. 이러한 인문학적 소통의 결과로, 그동안 침체되었던 국내 고소설 연구의 방향과 연구방법에 자극을 주어 근대적 학문연구의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한국학은 이제 국내 학자들만의 연구대상이 아니며 또한 해외 한국학자들의 주장이 한국학의 객관성과 질적 수준을 담보한다는 보장도 없다. 국가와 국가 간의 교류가 필요한 것처럼 세계화 시대에는 한국학자들과 해외학자들 간의 교류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고 인문학에서도 국제 간 공동연구가 절실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 다룬 스킬렌드의 업적은 국내 고소설 연구에서 배제된 해외 한국학의 존재를 드러내는 점에서 한국 인문학의 세계화 가능성을 보여준다. 과거 인문학 분야의 연구는 소수이지만 대개 외국인 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었고 국내에서는 학문의 특성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 본 연구는 학문 분야의 시야를 넓혀 해외 한국학의 업적을 평가하고 그 학술적 성과를 공유하고자 한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Andrew David Jackson ed., 『Key Papers on Korea: Essays Celebrating 25 Years of the Centre of Korean Studies, SOAS, University of London』, Leiden · Boston: Global Oriental, 2013.
- H. Cortazzi, ed., 『Britain and Japan: Biographical Portraits』, vol 5, Folkestone: Global Oriental, 2005.
- Lennard J. Davis, 『Factual Fictions: The Origins of the English Novel』,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Philadelphia, 1996.
- Lu Hsun, 『A Brief History of Chinese Fiction』, translated by Yang Hsien-yi and Gladys Yang, Foreign Language Press, Peking, 1959.
- Maurice Courant, 『Bibliographie Coréenne: tableau littéraire de la Corée』, Paris: Ernest Leroux, 1894.
- Peter H. Lee, 「Kode Sosöl: A Survey of Korean Traditional Style Popular Novels by W. E. Skillend Review」,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Vol. 92. No. 1, 1972.
- Richard Bowring, ed., 『Fifty years of Japanese at Cambridge 1948-98: A chronicle with reminiscences』, Faculty of Oriental Studies, University of Cambridge, 1998.
- W. E. Skillend, 「Chöng Pyönguk, Friend and Teacher」, 추모문집간행위원회 편, 『백영 정병욱의 인간과 학문』, 서울: 신구문화사, 1997.
- W. E. Skillend, 「Some First Problems Encountered in the Study and Teaching of Korean Literature in the West」, 『The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8, No.3, 1965.
- W. E. Skillend, 「The Text of the First Novel in Korean」, 『Asia Major』. vol. 14, part 1, 1968.
- W. E. Skillend, 『Kode Sosöl: A Survey of Korean Traditional Style Popular Novels』, London: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1968.
- W. G. Aston, 「On Corean Popular literature」, 『Transactions of the Asiatic society of Japan』, vol. 18, 1890.
- William J. Long, 『English Literature: Its History and Its Significance for the Life of the English Speaking World』, Boston: Ginn and Company, 1909.
- 구자균 · 김형규 · 손낙범, 『국문학개론』, 계명문화사, 1948.
- 권석우, 「한국문학의 영어권에 있어서의 수용 및 연구 현황」, 『인문언어』 제7집, 2005.
- 김광순, 「‘고소설’ 용어에 대한 考察」, 『국학연구론총』 제6집, 태민국학연구원, 2010.
- 김기동, 『이조시대소설론』, 정연사, 1959.

- 김기동, 『한국고대소설개론』, 대창문화사, 1956.
- 김동옥, 「한글소설 방각본의 성립에 대하여」, 『향토서울』 제8호, 1960.
- 김동옥, 「해외국문학자료수집잡기」, 일지사, 『한국학보』 권2, 1호, 1974.
- 김동옥, 『羅孫書室通信』, 한국문학비건립동호회, 1991.
- 김성철, 「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 서양인들의 한국 문학 인식 과정에서 드러나는 서구 중심적 시각과 번역 태도」, 『우리문학연구』 제39집, 2013.
- 김진곤 편역, 『이야기 小説 Novel: 서영학자의 눈으로 본 중국소설』, 예문서원, 2001.
- 김태준, 『조선소설사』, 청진서관, 1933.
- 김태준, 『증보조선소설사』, 학예사, 1939.
- 김하림, 「魯迅과 金台俊의 小説史연구」, 중국어문연구회, 『중국어문학논총』 제22집, 2002.
- 류탁일, 『완판방각소설의 문헌적 연구』, 학문사, 1981.
- 류탁일, 『한국문헌학연구』, 아세아문화사, 1989.
- 박성의, 「계상국전 소고」, 고려대학교 『문리논집』 제6집, 1962.
- 박성의, 『한국고대소설사』, 일신사, 1958.
- 손낙범, 『한국고대소설론』, 동화출판사, 프린트본 刊記未詳.
- 신기형, 『한국소설발달사』, 창문사, 1960.
- 양재연, 「김태자 평설」, 『국어국문학』, 제25호, 1962.
- 오윤선, 『한국 고소설 영역본으로의 초대』, 지문당, 2008.
- 이민희, 「20세기초 외국인 기록물을 통해 본 고소설 이해 및 향유의 실제」, 『인문논총』 제68집, 2012.
- 이민희, 『16-19세기 서적중개상과 소설·서적 유통 관계 연구』, 보고서, 2007.
- 이병기·백철, 『국문학전사』, 신구문화사, 1957.
- 이상현, 『한국 고전번역가의 초상, 게일의 고전학 담론과 고소설 번역의 지평』, 소명출판, 2013.
- 이상현·이은령, 「19세기 말 고소설 유통의 전환과 ‘민족지’로서의 고소설- 모리스 쿠랑 『한국서지』 한국고소설 관련 기술의 근대 학술사적 의미」, 『비교문학』 제39집, 2013.
- 정규복, 『한국고소설사의 연구』, 한국연구원, 1992.
- 정병설, 「영국도서관 소장 경판한글소설 재론」, 『고전문학연구』 제42집, 2012.
- 정병욱, 「서평- W. E. Skillend著 古代小説 Kode Sosöl」, 『고전문학연구』 제1집, 1971.
- 정병욱, 「최문헌전소개」, 『용재백낙준박사환갑기념논문집』, 사상계사, 1955.
- 정주동, 『홍길동전연구』, 문호사, 1961.
- 조동일, 『신소설의 문학사적 성격』, 서울대학교출판부, 1973.
- 조동일, 『소설의 사회사 비교론 1』, 지식산업사, 2001.
- 조동일, 제4판 『한국문학통사3』, 지식산업사, 2005.
- 조윤제, 『국문학사』, 동국문화사, 1954.
- 주왕산, 『조선고대소설사』, 정음사, 1950.

<Abstract>

Genealogy of the Discourses on Korean Traditional Novels:
A Study on Academic Significance of Professor W. E. Skillend's Kodae Sosöl

Ahn, Dongzoon* · Yeon Jaehoon**

In this study, the performance of Korean Studies that have been made abroad, was criticized from the point of view of today. The way to develop the expansion and qualitative level in the range of Korean Studies, was seeking through these methods. Here, we consider the discourse of traditional novels as a research history that was in W. E. Skillend's Kodae Sosöl, and it examined his academic achievements and research historical significance, and we explained the indirect effects and academic contribution of W. E. Skillend's Kodae Sosöl suggested at Korea and abroad of the relationship works.

Of course, there was also a problem that is, the methods of the positive philology has not been strictly enforced. It was an analysis of the literature presented in this paper which was mentioned in the introduction of Kodae Sosöl. He committed such error, as for main reason about Asia novel because of his prejudice. The reason positive literature research running in a state of exclusion of the recording of historical literature, was that his recognition was based on the British novel, it was Orientalism.

Nevertheless, he introduced the methodology of the modern philological literary research to Korea which contributed importantly to development of Korean philology field. In addition, the existence of the discourse of traditional novels that has been circulated in the inside and outside of Korea, has been mentioned in the course of searching for a genealogy of the literature on traditional novels. Kodae Sosöl's contributions were very many. It should not have been omitted that Korean scholars who did not stress on positive research of the original literary text, were realized the importance of it in Literary research by W. E. Skillend.

It was not only that he was addressed to the translated works or adapted work of Chinese fiction in Kodae Sosöl, but he introduced the situation where the Korean traditional novels was translated from foreign country. From such reason, W. E. Skillend's Kodae Sosöl was evaluated as the important achievement in terms

* Professor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 of SOAS, University of London.

of globalization of Korean Studies.

Key word: W. E. Skillend, Kodae Sosŏl, philology, traditional novels, novel discourse